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 茶香에 취하고 우리 가락에 또 한번 취하네



## 차와 국악 만남의 무대... 내달 9일 문예회관 '다악과 함께하는 다도'

“은은한 차 향기에 취하고, 우리 가락에 또 한번 취하고.”

차와 국악이 만난다. 다례 시연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공연이 관객을 찾아간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단장 심인택)이 한국문화협회 호남지부(지부장 이해자)와 함께 광주시민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오는 7월 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다악(茶樂)과 함께하는 다도(茶道)- 그 푸른 날들의 찻잔 초의(草衣)'는 무대 위에서 다례 시연과 연주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행사다. 공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관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차를 시

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흔히 차음악으로 불리는 다악(茶樂)은 우리 전통문화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다례·다무 등 다양한 퍼포먼스와 어우러져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장르로 광주에서는 처음 선보인다.

국악관현악단이 무대 뒤쪽에 자리잡고, 앞쪽에는 다례 시연자들이 앉으면 공연이 시작된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다례 시연은 세 가지, '규방다례'는 사대부가의 여인들이 이웃이나 친지를 초청해 다회를 베푸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생활 속에서 행해 오던 것을 전승한 생활다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때 배경이 되는 음악은 상령상, 중령상, 상현 도드리 등으로 구성된 전통 국악 '영산회상'이다.

'선비차'는 학문을 토론하고, 세상사를 논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차 마시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으로 선비의 기상과 여유로움이 어우러지는 '겨문고 회상'의 '상령상'이 연주되며 도포를 입은 전현숙씨가 회포를 직접 쓰는 모습도 선보인다.

'생활차'는 말 그대로 우리 일상과 같이 하는 차의 모습이다. 친구와 담소를 나눌 때, 식후의 여유로움을 느낄 때, 혼자 사색에 잠길

때 늘 우리와 함께 하는 차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연주 곡목은 꽃을 머금은 차의 향기를 모사한 이종구 곡 '초당-흰 찻잔에 스며 퍼지는 차꽃 향기', 박일훈 곡 '바람-찻잎소리', 김희조의 '함주곡 8번-다심·다와·다선일매' 등 창작곡이다. 생활차 시연 중에는 무대에 마련된 5군데의 찻상에서 관객들이 직접 차를 마실 수 있다.

다례시연에는 백은주·박삼숙·김유기·유용자·주경희·조막래·박송옥씨 등이 참여하며 서명자·김영미·백정혜씨가 해설을 맡는다. 한편 공연장 로비에서는 한국제다·호남다원이 작설차·오룡차 등 다양한 차를 전시하며 전남도전 초대작가를 지낸 도예가 남태운씨의 작업실인 도예공방 '시나위'가 제작한 다기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심인택 단장은 "라이브 카페처럼 우리 전통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연"이라며 "많은 분들이 차도 드시고, 공연도 관람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1만원(성인), 5천원(학생). 문의 062-510-93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유쾌한 영웅들의 출현

### 고근호 '영웅전'...7월 4일까지 나인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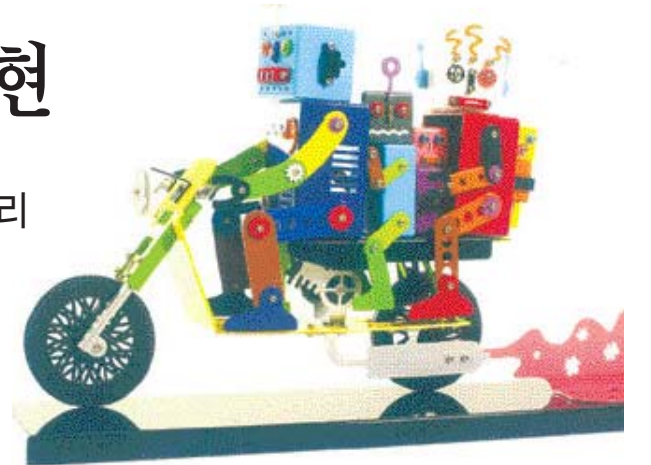
광주 예술의 거리에 유쾌한 영웅들이 나타났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 마이클 잭슨과 마릴린 먼로, '혁명'의 아이콘' 체 게바라, 아름다운 꿈을 꾸게하는 '여린왕자' 그리고 배트맨과 마징가 Z까지. 조각가 고근호씨가 창조해낸 영웅들의 모습은 유쾌하고 즐겁다.

고씨의 영웅 시리즈를 만날 수 있는 개인전이 7월 4일까지 나인갤러리에서 열린다.

고씨의 작품들은 알루미늄 판재를 재단하고 채색한 후, 볼트와 너트로 조립한 것이다. 작품 속에는 단주·손목시계·병뚜껑·열쇠 등이 감춰져 있어 작품을 한참 들여다 보고 있으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하고 있는 재미가 느껴진다.

또 다른 전시작인 로봇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엄마·아빠, 두명의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피



‘피크닉’

크닉'에서는 따뜻한 가족애가 느껴지고 침대에 걸터 앉아 상념에 빠진 로봇이나 쓰러질 듯 기우뚱 서 있는 셀러맨을 형상화한 모습에서는 고달픈 세상사에 느껴진다.

고씨는 조선대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영웅 시리즈 등으로 국내외의 아트페어와 옥션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의 062-430-432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블루그래스 뮤직 광주 첫 선

### 엔시안호텔클럽 27일 광은 대강당서 연주회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블루그래스 음악(Bluegrass Music)이 광주에서 첫선을 보인다.

광주엔시안호텔클럽(www.jodel.kr)은 한국블루그래스음악클럽(http://cafe.daum.net/KBMA)과 함께 27일 오후 6시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광주 블루그래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미국의 민속음악인 블루그래스는 밴조를 필두로 만돌린, 도브로, 바이올린, 기타, 콘트라베이스로 구성된 음악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광주의 유일한 블루그래스 밴드인



'FOKEY'〈사진〉가 'Snow Deer' 등 5곡을 연주하며 대전의 가족밴드 '라운 페밀리', '만고강산'이 '낭랑 18세' 등을 블루그래스 곡으로 편곡해 연주한다.

이날 공연에는 광주엔시안호텔클럽 회원들이 특별출연한다. 문의 010-6485-44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평화의 작가' 이항성 벽화 '기념' 시립미술관 로비에 영구전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최근 '평화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화가 이항성(1919~1997)의 대형 벽화작품 '기념'을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층 로비에 설치했다.

2007년 10월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관 외부에 조각작품을 일부 전시하고 있지만 로비 내부에 소장 작품을 영구 전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했던 이씨가 1988년 제작한 '기념'은 가로 750cm, 세로 325cm의 대형 도자 작품으로 작가가 500여개의 조각을 일일이 구워 만든 작품이다.

지난 1999년 하정웅씨가 기증한 후 조각상태로 수장고에 보관됐던 '기념'은 전문가 3명이 3주간 500여개 조각을 이어 부치는 작업을 거쳐 이번에 빛을 보게 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백두산

부인 + 인질 직함

7.25 ~ 8.15

구분	관람료	문의
일반	10,000원	062-226-6070
학생	5,000원	
어린이	3,000원	
장애인	5,000원	
단체	문의	

062-226-6070